

목포시 근대건축물 정비 '마구잡이'

문화재청 의견 무시하고 무분별 공사

舊 일본영사관... 유산·환경 훼손 우려

근대문화도시 목포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재인 '구 목포일본영사관(국가사적 289호)'과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건물(전남도 기념물 174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활용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가 현재 구 일본영사관 주변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가 전문성이 없어 무분별하게 추진돼 문화재와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목포문화연대는 최근 '구 일본영사관 정비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

최와 함께 주제·내부 공간·전시를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현 목포근대역사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목포시가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문화재청은 영사관 주변에 가급적 계단 설치를 자제할 것과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직선 동선을 지양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목포시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직선으로 돌계단을 설치하려다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취소했다.

또 정비 공사에 대한 안내문은 고사하고 관리인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가하면 수군절도사와 만호 공덕비를 뽑아 방치하고, 영사관 내 나무도 물통만 남긴 채 가지를 무자비하게 잘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역사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주제에 대한 방향 설정과 공간 구성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 건축물의 내부 구조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 같은 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만 추진해 빙퇴를 사고 있다.

실제로 '구 동양척식회사 건물'을 활용해 만든 '목포근대역사관'은 사전 준비 부족과 전문 인력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6년 개장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사진전제 전시한 사진이 지금도 그대로 걸려 있다.

이에 반해 목포와 유사하게 '구 동양척식회사 건물'을 활용해 '부산근대역사관'을 만든 부산의 경우 다양한 연구와 전시,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태관 문화연대 대표는 "목포시는 현 '목포근대역사관'이 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말까지 2억여 원을 들여 옛 일본영사관 정문 앞 수목을 정비하고 수군절도사 치적 비를 이전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고구석 기자 yousou@

올 여름 휴가철

목포역 이용객

작년비 12% 늘어

올 여름 휴가철에 목포역을 이용해 서남권을 방문한 여행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올 여름에는 태풍과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역(역장 박석민)은 올 여름 휴가기간(7월15일~8월15일) 동안 수송량은 8만 873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만 9410명에 비해 12%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기차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적극 모집하고 역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하는 등 밸로 뛰는 마케팅을 벌여 결과로 풀이된다.

목포역은 시티투어와 해남 땅끝 투어를 연계해 만든 대학생 투어인 '내일로' 관광객을 2000명 넘게 직접 모집하고, 목포해양문화축제 때 요트체험 관광객도 모집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빙글빙글 상모돌리기

연 등을 선보인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10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무료 토요공연'을 갖고 마당놀이 창극 '불효자는 웁니다'와 부채춤, 신민요 잔치,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 등을 선보인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해안방풍림 조성 172ha 확대

2014년까지 20억 투입

전남도가 해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안방풍림 조성 사업에 밸벗고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32억원을 투자해 260㏊의 방풍림을 조성한 결과 해풍 피해를 나무높이의 5~6배 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형, 풍력 등을 고

려해 바람의 속도 감소효과가 큰 해송, 가시 등 상록수를 20~60m 폭의 숲으로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 해안가 주변 뿐만 아니라 해안과 연접한 대규모 간적농지와 기존 방풍림 훼손지역, 농경지 주변 등에 숲을 조성하는 등 농어촌 경관기능까지 차별화해 관광자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박스 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스타박스 빌딩 입대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임대료 : 300만/평
-층 수 : 9, 10층
-층 고 : 10미터
-모든 업종 가능
(공동 중개 가능)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371-4449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거용지 · 아주자택지 · 협의자택지

< 전국 혁신도시 투자전문 >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3153-4242
010-2609-5888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은점업) (대한동 소방서건너편)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 91800㎡, 임야 : 13937㎡

개보면 13월 23평면, 케모보일 10평형 17세대 관리동 1칸, 각동 독채형

식 주차장 20평, 수리한정지, 수리원, 기도원적합 여유대지있음 계획있음

• 매매가 : 13억(군지당29평전포함)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 매도

전라남도 해수면 월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 1095㎡

• 지상1층지상2층, 29개 월리비아터 있음 유통판단일구

• 매매가 : 10억(군지당3평전포함) 실투자금 : 8억4천

토지 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한국어린이집육아원

• 대지 : 262㎡, 세제증명필수 거리지역 유통, 밀다, 접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7천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활농지

• 대지 : 1425㎡, 토지적합도로 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9천5백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대지 : 1210㎡, 제2종일반지역 코너 일률, 빌리 적합

• 매매가 : 1억7천만원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자연녹지 지역

• 대지 : 1502㎡, 허유설수 재배(배나무)

• 매매가 : 5억3천만원

과수원 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우면 15~20년 2000주이상

• 대지가 높이 과일당면 약 100평

•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전라남도 장성군 복흥면 담동리 2차선 국도변

• 전. 임야, 대지 16998㎡, 단독주택 97.7평 포함 포도나루 2000주 포함

• 매매가 : 3억6천만원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자연녹지 지역

• 대지 : 1502㎡, 허유설수 재배(배나무)

• 매매가 : 5억3천만원

기든 매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22번 국도점

• 대지 : 1646㎡, 전 : 610㎡, 가든건물 : 271.5㎡, 단독주택 : 143.55㎡

• 매매가 : 6억 3층3역3천평 실저지금 2억7천만원

대표전화 ☎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딩기요트 양산... 요트 대중화 앞당긴다

대불산단 '그린오션라이프' 개발 내일 진수식

국내 기술진에 의해 제작에 성공한 국내 최대의 레저요트(플레저보트)와 딩기요트(사진)가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목포 삼학도 마리나에서 (주)푸른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수퍼급 디럭스오트 '카타마란62 피트크루즈'와 (주)그린오션라이프가 제작에 성공한 딩기요트 '딩기420'의 진수식 및 시승식이 열린다.

이날 진수식에는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지식경제부 김경수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해양대 이경우 교수가 '해양저지산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푸른중공업 김봉철 대표가 진수 요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딩기420'의 양산화 성공은 국내 요트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그린오션라이프는

경기보트쇼에서 1만척을 발주해 화제를 모은바 있는데, 생산된 요트는 요트 프랜차이즈 200여 곳을 통해 클럽과 마리나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딩기요트=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은 1~3인용의 소형 세일 요트(sail yacht). 엔진이 없이 작은 티끌과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연안이나 강 또는 호수에서 레포츠용으로 사용된다.

사외장, 화장실, 펜션 등을 확충했다.

또 불거리 제공을 위해 토요콘서트, 우리기자 우리미당, 개막 축하쇼 등 공연을 실시해 피서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